

친환경 포장기술·고령자 식단 등 푸드테크 분야 11.2억 투입

농식품부, 신규 연구개발 4개 선정
총 51개 기관 평균 12.7대 1 경쟁률
과제 심사엔 투자전문가 참여 평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친환경 포장기술 등 민간 주도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구과제 4건을 선정해 2년간 1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 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간편식 생산기술, 식품 프린팅 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민간 주도 연구개발과 범부처 차원

의 연구개발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민간주도 연구개발 과제로, 기초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1~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단계' 2개와 최근 3년간 총 2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연계형' 2개 과제로, 자유주제로 공모했다.

과제 공모기간 중 총 51개 기관이 응모해 평균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과제 심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투자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개발 후 산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했다.

아이디어 단계 선정 2개 과제는 ▲김치 포장재 절감을 위해 이산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적용 포장재 개발 ▲곡물 발아에 사용된 폐배지 재활용(업사이클링)기술이며, 2년간 각각 1억8700만원이 지원된다.

김치 포장재 개발 과제는 기존 포장재가 김치 부피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흡수제 대신 하이드로겔 형태 성분을 개발해 포장재에 도포하는 새로운 포장재 기술을 개

발하는 것으로, 식품포장재 전문기업 류림과 연세대가 공동 연구한다.

그간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던 다량의 곡물 발아 배지를 기능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지 성분을 분석해 식품소재로 개발하는 곡물 발아 폐배지 재활용 기술 개발 과제는 곡류 가공소재기업 에이치엔에이치그룹이 과제를 수행한다.

투자연계형 2개 과제는 ▲식물 단백질 건식 분리기술 및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고령자의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로, 2년간 각 3억7300만원이 지원된다.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 개발 과제는 기존의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인 습식이나 화학적 처리과정의 단점인 기능과 맛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식

물성 대체식품 제조로 유명한 스타트업 더플랜잇이 과제를 수행한다. 고령자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과제는 고령자의 저작능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별 저작 및 연하능력에 따른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강의료기기 전문기업 큐라움과 식품기업 아워홈, 연세대 등이 공동 연구에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과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수행되며, 총 지원 규모는 11억2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에는 산업화를 앞둔 확장(스케일업)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기술 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도 '공장심사 지연' 등 韓 기업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218건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 많아

정부가 인도의 공장심사 지연 등 우리 기업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기술규제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며, 각국은 비관세 장벽인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해 5건의 애로가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표원은 TBT 통보문 218건을 조사·분석해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 전파하고, 인도(5건), 중동(2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유럽(2건, 스위스,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한 기존 12건의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해 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기업 애로 내용은 품질인증,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에코디자인 등이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특히,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해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로 해소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국가 표준과의 일치와 정보 제공 및 명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약 288억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게 됐다. 또 인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가 지연되며 관련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하기로 해 약 355억원 규모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인도의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과 관련, 예외조항을 추가해 업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TBT통보문은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했으며, 분야별로 식의약품(110건, 50.4%), 화학세라믹(28건, 12.8%), 전기전자(24건, 11%) 순으로 많았고,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많았고,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전체의 39.2%(11건)의 비중으로 많았다. 통보문의 목적은 '보건과 안전'(51건, 23.3%),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25건, 11.4%), '기만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 10.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오윤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 개방형 혁신 활동·기술 이전 지원

플랫폼 전자계약 최초 시연

기술보증기금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이전 추가 지원에 나섰다.

26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KIMST 본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 지원 및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무상기술이전과 관련해 플랫폼으로 첫 전자계약도 시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플랫폼 정보 연계(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KIMST의 '오션테크 트레이드')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방안 마련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사업 등 공동마케팅 추진 ▲플랫폼 참여기업과 기관에 대한 공동 홍보 등을 추진키로 하고 해양수산분야 우수 국가R&D 성과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제고를 위

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식에선 기보와 KIMST가 공동으로 중개한 '공공기술 무료나눔 기술이전'과 관련해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항로 디지털 작동장치'에 관한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으로 무료 이전하는 계약으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시스템이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사업'의 주요 계약 수단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 체결한 전자계약이다.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인증과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시점확인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회원가입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형 기술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섬진강댐 '농업용수' 4700만t 대체 공급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섬진강댐에 농업용수 약 4700만t이 대체 공급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섬진강댐에서 동진강 유역으로 공급하는 농업용수 중 약 4700만t을 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용수 등으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하천, 농업용 저수지, 부암댐 등에서 용수를 확보해 동진강 유역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으로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를 약 1개월 가량 늦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수위는 정상적으로 댐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를 뜻한다. 용수 확보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밀·콩 재배 농가 '전략작물직불금' 연장

신청 기간 내달 20일까지 지원
참여 기회 더 제공하기 위한 취지

논에 밀이나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내달 20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31일에서 4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늘린 이유는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등록업무가 중첩돼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밭살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며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제도다. 전략작물은 동계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콩, 가루쌀 등을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헥타르(ha)당 50~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소 지방소멸 대응위한 지자체 모집

중진공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26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와 연계해 과제를 수행할 지자체 총 13곳을 모집한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중진공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지방중기청, 중진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기업에게 정책자금·수출·기술사업화 등을 이어달리 기식으로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이며, 접수기한은 오는 4월14일까지다. /김승호 기자